

공연 예술
발표논문 01

요약문

종교문화 콘텐츠로서 궁중무용의 활용을 위한 분석¹⁾

박신영 숙명여대 무용학 박사
박순자 숙명여대 무용과 명예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IT 산업의 발달과 유비쿼터스 시대에 발맞춰 한국적 생활기반들은 서구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도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그 정신을 고취하고 함양시키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전통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고궁 공연과 전통연희축제, 궁중문화축전과 같은 행사들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전통문화예술 중 궁중무용은 왕실을 중심으로 발전한 악·가·무 형태를 띠고 있는 종합예술이다. 유교와 불교의 종교적 영향을 받기도 하였으며 춤과 효, 예악사상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오랜 시간 지속되어져 왔으며 나라의 대·소사에 사용될 만큼 중요한 요소로 이어져 왔지만 오늘날 국가행사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궁중무용과 관련된 공연은 국립국악원 혹은 고궁 공연 행사로서만 연희 될 때 볼 수 있다.

유럽에서 생겨난 발레의 경우 14세기부터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궁정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무용으로 자리 잡았다. 궁정발레를 시초로 유럽의 전 지역에서 발레가 발달하였고 루이 14세 때 왕립무용학교를 설립하여 후학들을 양성하였다. 이렇게 세계적인 무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클래식,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이 시대 발전에 따라 형식이 발달하고 동시에 국가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오늘날 발레가 대중화 될 수 있었던 것은 1997년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가 시초로 문영철(2015) 「발레 공연 성공사례를 통한 창작발레의 대중화 발전 방향 모색」에서도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의 창작공연과 기획공연을 예로 들었다. 또한 실용무용과의 콜라보인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경우도 틀에 갇힌 각자만의 영역이 아닌 새로운 예술을 창작하여 관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에도 국악과 궁중무용에 관련된 다수의 기관들이 있다.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국립국악원 역시 인재 양성 교육과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발레보다는 대중화와 보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자 역시 전통문화예술을 알리기 위하여 고궁을 포함한

1) 본 논문은 박신영(2017)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입니다.

해외에서 공연을 선보였는데 관객 대부분이 민속무용과 신무용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무용인 줄 아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궁중무용은 국가적으로 총과 효, 예악사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고 왕이나 외국사신 접대에서 선보였다. 특히 왕 앞에서 많이 추어졌는데 이를 기독교에서는 궁중무용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사랑과 감사를 전달하는 예배무용으로 사용된다. 이명경(2000)의 「움직임으로 드리는 대안 예배 유형연구」에서는 예배에서의 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배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움직임 통하여 예배 공동체를 영적 깊은 가운데로 인도하며 성서의 새로운 차원 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대안예배의 접근방법으로 한국전통문화 중 정재를 절기 예배에 적용하고자 하였는데 정재는 변질되지 않은 정신을 지키고 있는 전통문화예술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잘 간직하고 바로 알리고자 하는 연구자의 소명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예배무용 자체는 예배 안에서 찬양하는 춤으로써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도구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내에서도 충분한 활용이 가능하고 나아가 어울림을 목적으로 축제의 기능도 되새길 수가 있다.

예배 안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쉽게 모일 수 있는 것은 축제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에서 많은 축제들이 열리고 있는데 춤과 종교가 관련된 축제도 있다. 정은(2011)의 연구 「무용 콩쿠르를 통한 기독교 무용의 특성 분석」에서는 무용은 종교적 제의식을 통해 발달되었고 이러한 기록이 성서에도 있지만 그 영향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무용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기쁨의 표현, 절기와 잔치에서 흔하게 쓰였고 예배문화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무용의 흐름을 자연히 알 수 있는 무용 콩쿠르라는 것을 통해 기독교 무용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궁중무용은 하나의 문화예술 콘텐츠로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종교문화 콘텐츠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가지는 종교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행위로도 볼 수 있다. 정건진(2010) 「종교문화콘텐츠로서의 교회 예전무용에 관한 연구」는 교회무용을 종교문화콘텐츠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예전무용으로서의 제의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예배의식 안에서 드러지는 무용이라 할 수 있는 예전무용은 행렬과 말씀선포, 기도, 묵상과 같은 종류로 나누었다.

종교적인 부분, 특히 기독교적 부분에서까지 활용되고 있는 궁중무용은 우리나라에서 대표할 수 있는 국가자산으로 앞으로 종교문화 트렌드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 바 세계적으로 입지를 다지고 축제라는 하나의 문화를 통하여 대중화와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전통문화예술과 궁중무용

1. 전통문화예술 개념

전통문화예술이란 전통과 문화, 예술이 결합된 단어로 개인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전통이라 함은 역사적으로 전승되어온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전하는 것이고 원시시대부터 현재까지 전해진 개인이나 사회, 집단 등의 유·무형 산물이다.

전통은 과거로부터 전해져 온 유산에 그치는 것이 아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며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 이윤경(2015)의 「전통예술을 통한 문화 복지 증진 방안 연구」에서는 전통예술을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거나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모든 인간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전통문화는 관습이나 전통사회의 문화로 보는 것이 아닌 현대에서도 적합성을 갖는 문화유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현대문화로부터 단절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연속성을 갖고 있는 실재들’로 이해하여야 한다.

다시금 전통문화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 형성된 것으로 시대적 낙인과 민족적 색채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성과 민족성은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구분하기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지만 고정불변의 무기체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발전·변화하기도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 변하는지 예측하기란 어려운 것이지만 그 가치는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창 1:22)에 담긴 뜻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 인간과 생물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생기고 번성하였다. 이러한 말씀처럼 문화유산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전에 인간과 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전통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한 의식주에서 시작하여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가지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연구와 발굴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2. 전통문화예술 유형

전통문화예술은 유형적 유산과 무형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형태가 있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유형적 문화유산은 의식주에 속하는 건축, 의복, 음식 등과 더불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예도 포함된다. 유형적 문화유산을 의식주와 관련하여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은 나무, 벽돌, 흙 등 따위의 재료로 구조물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살림살이를 마련하여 평생 지낼 수 있는 공간이다. 인간은 주거지 안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건물에 따라서 실용적 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생활한다. 건축 종류로는 사찰, 탑, 산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고유의 의복과 음식이다. 한복은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의복으로 그 전통성은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가 기본적인 형태를 띤다. 옷감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삼베나 무명으로 짜서 사용하고 그 색은 다양하지만 신분제에 따라 나뉘었다. 음식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김치, 비빔밥, 불고기 등이고 장의 종류에서는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을 들 수 있다. 떡의 종류로는 찌서 먹는 시루떡, 백설기 등이 있고 부쳐 먹는 화전, 쳐서 먹는 인절미, 빚어 먹는 송편, 경단 등이 있다.

셋째, 공예는 실용적인 물품이지만 여기에 예술적인 가치를 부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미술의 한 종류이다.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지는데 짚신, 매듭, 도자기, 한지, 옷칠 등이 포함된다. 물건을 만드는 과정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대상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외래 공예양식을 받아들여 시대별로 그 모습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까지는 실체가 있는 것이었다면 반대로 실체가 없어 그 형태를 알 수 없는 것은 무형적 문화유산이라 한다. 유산의 일정한 형태와 크기를 알 수 없지만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을 바탕으로 하여 문화재 지정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무형적 문화유산은 보이고 만질 수 없는 실질적 자산이 아니므로 소실과 변화를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술성의 가치 또한 헤아릴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무형적 문화유산은 문화재보호법 아래 보호를 받으며 문화재를 가진 보유자를 지정하여 끝이 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계승이 되어야 하기에 후학 양성교육도 필요하다. 무형적 문화유산의 종류로는 무용, 음악, 소리, 농악, 굿, 연희 등이 있다.

문화재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문화재 유형은 유적건조물, 유적, 기록유산, 무형문화재, 자연유산 총 5가지로 나뉜다. 이 중 음식과 공예는 무형문화유산이라 칭하고 있지만 형태가 있기에 유형문화유산에 속하기도 한다.

3. 궁중무용 개념

궁중무용의 일반적 개념은 궁중에서 이루어진 춤으로 정재, 정재무라고도 불린다. 궁중에서 추던 춤으로 민간의 민속무용과는 반대되며 삼국시대부터 왕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왕권강화와 외국사신 접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박은영(2006)의 「궁중정재의 시대적 변천과 철학적 연구」는 궁중무용을 궁중연향에서 왕후장상들의 관상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는 정치·문화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성장하고 발전되어 신라 이후 고려와 조선 3조에 걸쳐 왕실 보호 육성 아래 전래된 춤이 50여 종에 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마지막 무동인 김천흥(2005)은 “정재는 역대 우리나라 왕실의 연회에서 추어지던 무용을 통칭하는 것”이라 하였고 장사훈(2005)은 정재를 “재조 드린다”는 뜻으로 춤을 추어서 그 기능을 고귀한 사람이 보게 한다고 하였고 비단 그것이 춤뿐만이 아닌 ‘땅재주, 줄타기 등 모든 재예를 드린다는 뜻’으로 설명하였다. 성무경(2003)은 현재 국악학계나 무용학계에서 궁중연회에 연행되었던 궁중무를 기리는 다소 제한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명경(2000)은 민족 속에 함께 하는 문화를 통해 본인의 영성을 표현할 수 있는 터, 고유의 ‘나의 문화’인 ‘정재’는 하늘의 선물로 그 선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하였다. 신분의 차이를 벗어나 누구나 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께 재조 드린다 할 수 있다.

궁중무용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예속기관으로 음악과 무용에 관련한 모든 것을 교육하고 공연하였다. 정재 자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자체의 향악과 송나라 시기부터 전래되어 온 당악으로 형성 배경 자체가 다른 정재가 존재하였다.

향악정재는 고려시대부터 존재하여 11세기 이후 무렵 창제되었는데 기녀들이 부르는 창사가 한문이 아닌 국문으로 되어 있고 정재가 이루어질 때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치어와 구호가 없으며

무구로 사용되는 죽간자 역시 없다. 조선의 향악정재는 전기와 후기가 다른데 후기 순조대의 정재가 새로이 창제된 것이 많았고 군무보다는 독무가 발생되었다. 또한 동작, 의상 역시 간소화되어 궁중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많이 공연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당악정재는 송나라에서 유입되었는데 그 내용은 『고려사 악지』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그 종류로는 <헌선도>·<수연장>·<오양선> 등과 같은 정재로 절차와 형식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향악정재와는 반대로 죽간자가 사용되었고 치어와 구호가 있으며 창사가 한문으로 되어 있다. 조선전기보다 조선후기에 이르러서 당악정재에 비하여 향악정재 비중이 높아졌고 형식조차 간소화 됨에 따라 당악정재가 향악정재에 속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송민숙(2005)의 「한국궁중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예’를 갖추어 행함을 근본으로 두었기에 외향 표출을 경망시 하고 인내의 미덕과 중용을 이상으로 보았다. 이러한 바탕에는 동양철학사상이 깔려 있고 동양사상을 집약하면 도에 관한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우리나라의 무용 역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우아하고 웅장하며 아름다운 것은 궁중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절제미와 간결함이 내포된 상태로 연회와 연향에 사용되었고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일정한 장단 속에서 정형화된 동작으로 무용수 자신을 표현하기가 어려웠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무용수로 춤을 춘다는 자제, 즉 인격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졌다고 할 수 있다.

4. 궁중무용 유형

정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고종 때 만들어진 『정재무도흥기』이다. 이 책에 수록된 정재 종류는 약 45종으로 조선시대 1893년 고종 30년에 만들어졌고 절차와 양식 등 정재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1451년 문종 원년에 편찬된 『고려사 악지』와 1493년 성종 24년에 편찬된 『악학궤범』에 수록되어 있는 정재들은 거의 흡사하고 그 수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궁중무용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향·당악정재 두 부류로 그 종류는 약 55종에 달한다. 신라시대부터 시작하였다고 하지만 성행된 시기는 조선조부터였고 특히 유교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신라초기 발달한 무용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 처용설화를 모티브로 한 <처용무>를 비롯하여 <검무>, <무애무>, <선유락>이 대표적인 궁중무용이다.

고려시대로 들어서면서 중국문화의 유입이 시작되어 <헌선도>, <수연장>, <오양선>, <포구락>, <연화대>와 같은 당악정재가 활성화 되었다. 이 시기의 향악정재 <무고>는 무용수들이 북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추었던 것이고 <동동>은 가사가 있는 노래에 무용이 함께 하였다.

조선시대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궁중무용을 포함한 궁중예술이 시대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과 역사를 가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조선왕조는 약 500년 동안 이어졌고 연회마다 유교적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궁중무용의 절정기를 이루었다. 전기 궁중무용은 12종, 후기 궁중무용은 6종으로 순조대에는 효명세자가 창작한 23종의 향악정재 중 <춘앵전>, <가인전목단>, <헌천화>, <무산향>이 잘 알려져 있다.

궁중무용은 개인부터 나라까지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예술이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6-47)의 구절처럼 누구에게나 대접받고 대접할 수 있다. 단순히 즐거움이 아닌 왕을 위한 연회, 국가와 백성의 소통을 위한 연회로 발달에서 대중적인 문화로 향유할 수 있고 세계적인 예술이 될 만한 국가의 소중한 자산으로 세계화 속에서 자국민을 포함한 모두가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궁중무용의 많은 활성화가 필요하다.

Ⅲ. 해외 전통문화예술 사례

1.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아비뇽 페스티벌은 매년 7월 남동부에 있는 도시에서 약 3주간 진행되는 페스티벌로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페스티벌의 시작은 연출가이자 배우인 장 빌라르가 1947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연극으로 진행하면서부터이다. ‘아비뇽에서 예술의 주간을’이라는 목표로 아비뇽 교황청 안뜰에서 공연이 이루어졌고 후에 ‘예술의 주간’은 ‘연극의 주간’으로 변화되어 1951년 다섯 번째 페스티벌에서 관객이 1만 명 이상이 되어 장 빌라르가 지속적으로 예술감독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김동민(2016)「아트마켓 사례분석을 통한 무용공연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페스티벌 형식의 아트마켓으로 모든 공연 활동이 파리로 집중되어 있던 것을 지방으로 분산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소도시로 퍼지며 또한 궁정 안 귀족들을 중심으로 하여 일반 서민들에게 전달된다. 이렇듯 지방 분산화 이후에 예술에 소외되어 온 지방의 사람들이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장 빌라르는 민중극단의 중심이자 1대 단장으로 그가 사임하기까지 아비뇽 페스티벌의 발전과 주체성 및 가치성 확립 등과을 위해 투쟁을 하였다. 그 결과 아비뇽 당국과 마찰을 빚게 되면서 결국 그는 사임하게 되었지만 이후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연극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장르에 영향을 미쳐 축제에서 공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극 외에도 무용, 음악, 마임, 영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예술 페스티벌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은 공연과 예술교육에 관련한 학술회, 예술가와의 만남 같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1971년 장 빌라르가 사망하고 폴 퀴오가 2대 단장으로 임명되어 아비뇽 페스티벌을 운영하였다. 이 페스티벌의 특이성은 공식적 부문인 In과 비공식 부문인 Off가 있다. In은 공식축제에 속하면서 예술성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작품이 공연되고 Off에는 비공식축제로 참가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하고 참여가 가능한 자유 참가작이 속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예술성을 인정받지 못하였거나 공연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예술가들이 쉽게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비공식이기 때문에 아비뇽 페스티벌 주최 측은 어떠한 지원이나 혜택을 주지 않기에 모든 부담은 예술가 자신이 하여야 한다.

3대 단장으로는 베르나르 페브르 달시에가 임명되어 장 빌라르가 운영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의 다양함을 추구하였고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원하였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영을 위해 '경영'의 개념을 도입하여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있는 기구로 정비하였다. 김미성(2007) 「아비뇽 축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에서는 '경영'을 위하여 후원자 물색과 폭넓은 인력 구축, 티켓 판매와 같은 시도를 하였다고 한다.

아비뇽 페스티벌이 가지는 In-Off의 특성 외에 일반 공연에서 볼 수 없는 창작 공연과 초연 작품들이 많아 페스티벌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작품이 주는 위험부담은 크다. 반면, 아비뇽 시내에서 페스티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내 모든 장소가 공연장으로 변하여 공간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가가 직접 공연할 장소를 선택하여 관객이 모일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 공연예술과는 달리 자유로움이 동반되어 참가자와 관람객의 소통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은 자유로움과 복합공연예술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고 생산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을 필두로 페스티벌의 성공요인을 꼽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 예술 정책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시 한다. 참가작에서의 In과 Off의 도입 이후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의 차이를 없애고 관객이 원하는 것을 찾아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간섭하지 않고 예술가가 추구하는 것을 존중하여 주는 것이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작품 권한이 관람객에게 있다는 것이다. 공연예술에서 1순위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은 감독에게 있다. 이는 작품의 흥망성쇠가 감독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비뇽 페스티벌에서는 문화의 탈중심화로 아비뇽 시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페스티벌에 관련된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어떠한 장르의 독점과 한정적인 선택은 없으므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아비뇽 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의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연장을 따로 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지하철, 커피숍 등과 같은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을 활용한다. 이런 곳을 이용하면 자칫 일어날 수 있는 싸움과 소란 등을 이해와 배려로 시민들이 한층 더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2.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매년 8월 영국 스코틀랜드 수도 에든버러에서 열리며 세계 최고의 페스티벌로 일컬어지는 에든버러 페스티벌 역시 3주간 진행된다. 프랑스 아비뇽 축제와 같이 1947년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복합공연예술 페스티벌이다. 연극, 무용, 마임, 서커스와 같은 다양한 예술 장르들이 매일 공연된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인들은 독일인들에 의해 심신이 피폐해져 있을 때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치유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에든버러 내에는 1년 동안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는데 프린지, 군악대, 영화, 민속, 등과 관련된 페스티벌이 있다.

최고운(2014) 「문화자원형 지역 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연구-제주도 프린지 페스티벌을 중심으로-」에서 에든버러 페스티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는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6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영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최고의 규모의 수준을 자랑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오페라, 클래식, 무용, 연극, 비주얼아트, 음악분

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초청한다고 한다.

류인평(2010)의 저서 『이벤트 경영론』에서는 “페스티벌 기간 중 에든버러의 인구는 평소보다 20배에 가까운 1,100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연극, 무용, 오페라, 오케스트라, 미술품 전시, 등불행렬, 거리공연 등 매일 500여 개가 넘는 공연이 개최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영국의 에든버러 페스티벌이 영향력 있는 행사가 되기까지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프린지 페스티벌은 국제 페스티벌보다는 조금 일찍 시작되며 초청공연이 아닌 자유 참가형식이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개최는 국제 페스티벌에 초청받지 못한 8개의 팀이 도시 변두리 소극장에 모여 공연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자유 참가이기에 예술가 자신이 원하는 작품과 예술 세계를 소정의 참가비만 내면 공유할 수 있다. 국제 페스티벌 사무국은 다른 프린지 페스티벌과는 다르게 일체 경비와 참가비를 받지 않으며 군인을 비롯한 민간인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분야별로 담당하여 모든 공연을 관람하고 사전 초청할 수 있다.

길거리를 포함한 모든 에든버러 시내에 있는 작은 공연장들은 이들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이고 여기에는 커피숍, 학교, 교회와 같은 장소들도 포함된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정된 공연장이 가지고 있는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에든버러는 고작 45만 명에 불과한 인구이지만 페스티벌을 통하여 연간 1천 2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다양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유럽의 꽃’으로 불릴만한 도시가 되었다. 공연 티켓 판매와 에든버러 주변 숙박 시설, 식당 등 페스티벌에 따른 수익 창출도 증가하여 에든버러 시의 경제적인 수준도 상승하였다.

하나의 문화예술을 세계적인 입지를 가진 페스티벌로 만든다는 것은 국가만 나서서 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국민만 나서서 되는 것도 아니다. 국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지 이를 수 있다. 에든버러 페스티벌도 마찬가지로 에든버러 시에서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것을 강요하였다면 국제 페스티벌로 입지를 굳히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예술을 사랑하고 즐길 줄 아는 시민들이 있었고 예술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예술이 가지는 본질을 추구하면서 그 지역의 오랜 전통으로 남아 전통문화예술을 지키고 시행하고 있는 자긍심을 보여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페스티벌, 즉 축제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해 온 것으로 그 시초는 자연과 관련한 내용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현대사회에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지역과 관련한 인물, 먹거리 등과 관련하여 열린다. 마태복음 14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룬 구절이 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마 14:14-21)에서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모든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고 행복하게도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축제는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며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소통을 할 수 있고 하나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Ⅳ. 서울시 소재 공연장 및 콩쿠르 궁중무용 현황

공연장은 극장이라고도 불리며 음악, 무용, 뮤지컬, 연극 등과 같은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을 관람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공연장 안에서는 예술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와

관람객들이 관람을 할 수 있는 관중석으로 나뉘며, 공연 장소는 실내와 실외로 나눌 수 있다.

나라마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연장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극장이 있으며 이외에도 큰 규모를 가진 공연장으로 국립국악원,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과 같은 공공극장들이 있다. 이런 공연장들은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우리나라 문화예술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공연의 홍보와 마케팅에 있어서 기존 방식인 팸플릿, 포스터를 활용하고 있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연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SNS라고 불리는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소식도 접근이 가능하여 공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문화예술에 관련한 관심은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무용공연과 그 중에서도 전통문화예술에 포함되는 궁중무용공연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하고자 하여 본 연구를 위해서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 두 곳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궁중무용 현황과 국내 기독교 무용 축제를 분석하였다.

1. 국립극장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립극장의 궁중무용공연 횟수는 해오름극장 2015년 1회, 달오름극장 2006년 1회, 2010년 2회, 2011년 1회, 별오름극장 2006년 1회, 2007년 1회, 2011년 2회가 공연되었다. 총 9회의 공연 중에서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된 국립극장 무용단의 <향연>을 제외하면 모두 무용가 개인 공연에서 민속무용들과 함께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공연된 궁중무용의 유형으로는 검무, 향발무, 춘앵전, 처용무와 같았다. 궁중무용이 가진 원형 그대로를 선보이기도 한 작품도 있었지만 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원형을 재해석하여 선보인 작품들도 있었으며, 이에 국립극장 공연장에서 이루어진 궁중무용공연에 대한 횟수를 분석한 결과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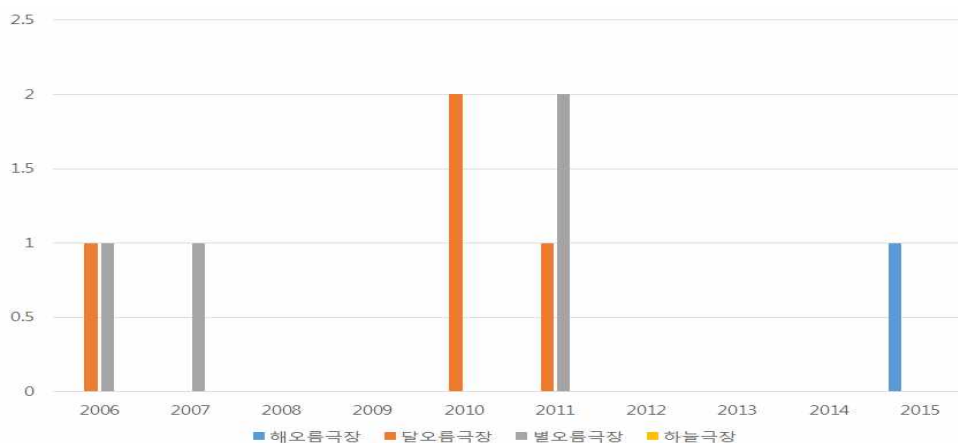


그림 1. 국립극장 궁중무용공연 횟수

2.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예약당, 우면당, 풍류사랑방 3곳으로 나누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궁중무용공연 횟수를 분석한 결과 총 167회를 차지하고 있었다. 예약당의 경우 80회, 우면당 76회, 풍류사랑방 11회였다. 이와 같은 수치는 토요일명품공연의 횟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며, 포함할 경우 603회였다.

국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면서 궁중예술을 접하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궁중악과 궁중무용이 차지하고 있는 횟수가 국립극장에 비해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궁중무용공연들은 국립국악원 상주단체인 정악단과 무용단의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을 제외하면 모두 무용가 개인 혹은 단체 공연에서 추어졌다. 유형들로는 춘앵전, 무산향, 향발무, 가인전목단, 무고, 아박무, 침수무, 포구락, 선유락 등으로 다양하였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국악원 궁중무용공연을 분석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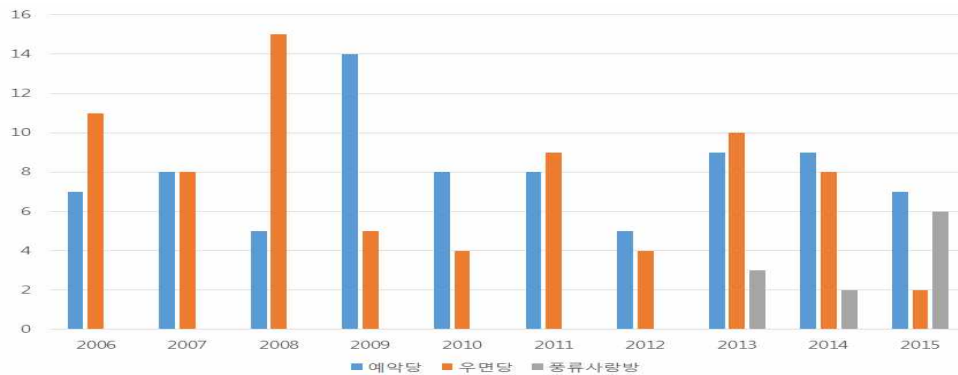


그림 2. 국립국악원 궁중무용공연 횟수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궁중무용공연 횟수를 분석한 결과 총 176회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국립국악원 토요일명품공연이 제외된 횟수로 포함시킬 경우 총 612회이다. 궁중무용공연이 활발히 나타난 시기는 2006년과 2012년이었고 반면 저조한 시기는 2015년이였다.故노무현 대통령 정권인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에서 2004년 3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직무 정지인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의 전통예술 정책과 공연 횟수와 상관계에 서는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 공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5년부터는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을 목표로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특히 국악 관련 기관인 국립국악원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궁중무용에 관련된 공연이 증가하고 있었다. 2008년 2월 5일부터는 이명박 대통령 정권으로 이 시기에는 국내를 포함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문화예술에도 영향을 끼쳤고 결국 문화예술계에서의 공연 횟수 감소를 가져왔다.

궁중예술은 역사적으로 왕을 중심으로 왕권체제가 성립된 이후 귀족이 포함된 상층의 문화로 높은 자들을 위한 것이 오늘날에는 모든 이들이 나누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민간에서 유래하여 궁중으로 유입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성은미(2020)의 연구에서 서울의 상층문화가 일방적으로 지방관아의 교방 쪽으로 흘러간 것만은 아니고 민간의 교방춤과 연희종목 일부가 궁중으로 유입되어 정재 종목으로 자리잡은 사례가 있다고 하고 있다. 양방향의 교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정재를 궁중과 민간으로 이원화 시키지 않고 융합으로 발전이 되었으며, 교류를 통한 수준의 완성도도 갖추게 되었다.

3. 국내 기독교 무용 축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기독교 무용 관련 축제는 크게 두 가지로 CDFK와 대한민국 선교무용 축제가 있는데 COVID-19가 발현되기 전까지 활발히 이루어졌던 행사이다. CDFK는 세계 기독교 무용연합의 한국 지부로 기독교인 연합과 무용인 발굴을 시도하며 기독교적 문화의 발달을 위해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 종교문화 콘텐츠의 하나로 인식되는 기독교 무용을 활용하여 무용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 참가 가능하며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공연을 선보인다. 심사기준은 경건함과 은혜로움, 예술성을 기준으로 이에 더하여 참가자의 영성까지 포함된다.

대한민국 선교무용 축제는 숙명선교회와 숙명무용론연구회, 한국선교무용예술원이 주최가 되어 2009년부터 시작하여 기독교 무용의 확장과 발전이 목적이다.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하여 비전공 개인과 단체, 전공 개인과 단체 부문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며 부문 안에서도 중·장년부, 대학·청년부로 나눈다. 심사기준은 춤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표현력과 창작성, 의상, 음악 등과 같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뿐만이 아닌 예배 마인드와 영성까지 포함된다.

정은(2011)의 연구를 통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 두 축제에 참가한 팀들의 작품을 보았을 때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워십 및 재즈댄스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었다. 2009년에 참가한 작품들을 분석한 바 한국무용 워십 17개, 발레 워십 4개, 현대무용 워십 1개, 워십댄스 6개, 재즈 워십 2개, CCD 워십 1개, 드라마 워십 1개였다. 2010년에는 한국무용 워십 15개, 발레 워십 4개, 현대무용 워십 7개, 워십댄스 5개, 재즈 워십 1개, CCD 워십 3개, 드라마 워십 1개였다. 2년 동안의 작품들 전부 창작물로 한국무용이 가장 많은 참가를 보였지만 이마저도 전통에 기반된 것은 찾을 수 없었고 특히 궁중무용을 활용한 작품 역시 없었다.

CDFK는 순수예술을 지향하며 기독교 예술무용이 비중이 높고 참여자도 교회무용 보다 2배 정도 많이 참가하고 있었다. 반면 대한민국 선교무용 축제는 기독교 무용을 하는 일반인이 자율적으로 참가하였고 아울러 연령대와 참가 장르가 다양하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두 축제 모두 하나님을 위한 축제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교회예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에 자국 문화예술을 사용하는 것만큼 좋은 예는 없을 듯하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서양의 것이지만 정재라는 동양의 궁중예술이 결합된다면 특별한 무대와 작품이 생산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명경(2000) 연구자 역시 절기에 따른 정재 적용으로 '한국 문화적 표현'을 통해 예배의 내용과 의미 고찰로 한국예배 문화 토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전통은 의·식·주 어떤 유형에든 적용되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보급되어왔다. 음악과 악기 그리고 한복, 음식, 가옥 등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시기가 갖는 본질과 상징, 특징이 담겨 그다음 시대에 전승되는데 변형을 거치며 재창조되기도 한다. 이는 무용에도 적용되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장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진리와 사랑을 주셨다. 이런 성품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오랜 역사와 가치를 지닌 궁중무용이 종교, 기독교 안에서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활용되는 방안을 목적으로 연구한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우선적으로 각 공연장에서의 궁중무용공연 인식을 환기시킨다. 우리나라 전통예술 정책 사업 중 하나로 고궁을 배경으로 한 공연이 상품화 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에서 궁중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궁중연례악과 같은 공연이 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왕의 잔치를 기반으로 한 궁중문화축전이 열린다. 이런 공연들에서 추어진 궁중무용의 대부분을 공공극장에서 공연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궁중무용의 활성화 혹은 대중화 방안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일반인보다 먼저 무용공연단체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궁중무용과 관련된 축제를 여는 것이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무용,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러한 점을 궁중무용에 대입하여 궁중예술과 관련한 페스티벌을 열어 대중적인 예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발돋움시킨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축제는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기독교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축제 및 콩쿨은 숫자가 현저히 작다. 이에 무용을 전공하는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비전공자와 더 모일 수 있는 예비무용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기독교 관점에서 본 무용, 예배 및 교회무용에 관련한 연구들은 있었지만 기독교와 정재 관련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해외에서 전통예술과 종교를 결합하여 공연을 하거나 사용된 사례들 중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것을 찾아 보완하여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회에서 예배무용 시 궁중무용 중에서도 추어진 적이 없거나 알려진 적이 없는 춤을 적용하여 춤의 의미를 새기고 예배를 풍성하게 만드는 기회를 만든다. 또한 주일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찬양의 기회를 늘리도록 한다.

참고문헌

- 김동민(2016). “아트마켓 사례분석을 통한 무용공연 활성화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미성(2007). “아비뇽 축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한국프랑스학회』. 59. 119-216.
- 김복수 외(2003). 『문화의 세기 한국의 문화정책』. 서울: 보고서.
- 김선미, 최준식(2012). “프랑스 문화정책 준거의 발전과 문화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1. 139-173.
- 김정희(2010). 『문명화, 문명주의, 기업문화: 영국정부와 예술 정책』.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천흥(2005). 『심소 김천흥 선생님의 우리춤 이야기』. 서울: 민속원.

- 김춘식(2002). 『세계 축제 경영』. 서울: 김영사.
- 류인평(2010). 『이벤트 경영론』. 서울: 기문사.
- 문영철(2015). “발레공연 성공사례를 통한 창작발레의 대중화 발전 방향 모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박은영(2006). “궁중정재의 시대적 변천과 철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성무경(2003). “조선후기 정재와 가곡의 관계”. 『한국시가학회』. 14. 195-227.
- 성은미, 김은미(2020). “궁중예술과 민간예술의 교류 메커니즘”. 『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 16. 69-94.
- 송민숙(2005). “한국궁중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무용 전공자들의 인식현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유혜진(2008). “국내 무용축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명경(2000). “움직임으로 드리는 대안예배 유형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봉호(2011). “20세기 프랑스와 미국 문화지원정책 연구-AFAA와 NEA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이윤경(2015). “전통예술을 통한 문화 복지 증진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재영(2004). “프랑스의 문화 정책-회고와 전망(I)”.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14. 69-89.
- 이혜경(2001). “공공 예술지원과 예술의 공공성-영국의 경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3. 255-278.
- 장사훈(2005). 『한국무용개론』. 서울: 민속원.
- 전병태(2007). “팔길이 원칙, 문화, 민주주의, 창조적 산업: 전후 영국의 예술 진흥 정책 개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27. 88-95.
- 정건진(2010). “종교문화콘텐츠로서의 교회 예전무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산업학회』. 10(2). 139-153.
- 정일한(2006). “지역민화합을 위한 수원시 축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국내·외 도시축제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정은(2011). “무용 콩쿠르를 통한 기독교 무용의 특성 분석”.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주미진(2006). “세계 여러 나라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진인혜(2005). “프랑스의 문화정책과 축제”. 『한국프랑스학회』. 51.303-324.
- 최고운(2014). “문화자원형 지역 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연구-제주도 프린지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보연 외(2016). 『주요국 문화예술정책 최근 동향과 행정체계 분석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논찬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종교문화 콘텐츠로서 궁중무용의 활용을 위한 분석	발표자	박신영, 박순자
		논찬자 (소속)	이선경 (명지대 조교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을 통해 복음전파의 사명도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재능을 주셔서 예배를 통해 곧 그 재능을 드림으로서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날은 문화를 통한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한국에서의 기독교무용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CCD 등과 같이 다양한 장르가 존재하고 있으며 전통과 창작 등의 다양한 기독교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적 기독교무용의 경우 해외선교에서는 빠질 수 없는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데 특히, 최근 한류열풍, K-POP 열풍, BTS의 세계적인 성공으로 인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선교의 현장에서도 한국문화를 통한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한국전통문화를 기반한 기독교무용 콘텐츠를 찾아내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효과적인 선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된다. 특히 궁중무용인 정재를 선교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자의 주장은 기독교무용이 문화사역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특별히, ‘헌기(獻技)’라는 정재의 의미가 기독교무용에서 더욱 확장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정재를 통한 예배는 민족 속에 함께 하는 문화를 통해 춤추는 자가 본인의 영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재가 선택된 자들의 본분이었다면 현재에는 신분의 차이를 벗어나 누구나 닿을 수 있는 하나님께 재조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나라는 수직적 관계와 나와 이웃이라는 수평적 관계를 정중하게 이어갈 수 있는 선교와 예배의 도구로서의 훌륭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COVID-19로 인하여 선교활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COVID-19 이전에는 다양한 해외 선교 현장에서 한국적 기독교무용이 선교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화관무나 부채춤, 장구춤과 같이 민속무용을 통한 선교작품은 많이 있지만, 정재를 통한 선교 작품은 아직 미비하고, 국내에서도 정재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자의 연구를 통하여 선교의 도구로서의 정재라는 콘텐츠가 선하게 쓰임받고 활성화 되길 바란다.